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6. 2. 11 (수)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12일 홍콩 H지수 ELS 제재심 결론…은행 과징금 얼마나 경감될까

아시아경제 https://zrr.kr/WIXr6u

금융감독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해 은행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이르면 12일 확정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자율 배상과 사후 수습 노력을 제재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전 통지된 2조원대 과징금이 어느 수준까지 조정될지에 관심

우리銀 "경쟁은행과 격차 줄일 방안 마련하라"

서울경제 https://zrr.kr/w2o8hp

우리은행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경쟁 은행들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
우리금융은 올해 CET1을 13%대로 끌어올리고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기업대출과 생산적 금융에 힘을 쏟을 계획

수수료 0원·실시간 추적…인뱅·페이사, 해외송금 경쟁 치열

이데일리 https://zrr.kr/AMdNf5

설 명절과 신학기 등으로 연간 해외 송금 수요의 약 30%가 연초에 몰리면서 인터넷전문은행과 페이사가 고객 잡기에 나서는 모습
특히 올해부터 연간 10만 달러 무증빙 송금 한도가 은행·비은행 구분없이 가능해지면서, 핀테크와 결합한 이들 인뱅·페이사는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속도를 앞세워 시장 공략

금융권 부실債 매각 물량 2조 육박.. 高환율에 전통 제조기업 부실 심화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LWzFa0

채권원금인 미상환 원금잔액(OPB) 기준 올해 1·4분기 은행권 NPL 매각 물량은 지난주 말 기준 1조916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간 1조6657억원에 비해 17.7% 증가
지난해 상반기에 은행권 NPL 매각분은 상가 등 가계, 자영업자 부실이 반영됐을 뿐 공장까지 전이되지 않았지만, 3·4분기 들어서는 공장 부실화가 시작됐다는 시각

주총시즌 앞두고…'행동주의' 공세 확산

뉴시스 https://zrr.kr/W0oywW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내 상장사들을 겨냥한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모습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은 물론 이사회 개편, 경영진 교체까지 요구 수위가 한층 상승

'동전주 상폐' 시동 건 금융당국…시총·매출 요건도 더 강화한다

매일경제 https://zrr.kr/AWQHQL

동전주 상장폐지와 함께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을 추가로 강화하는 상장폐지 제도 개편이 추진
지난해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에 따라 시총과 매출액 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으나,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

새해 첫 달 보험사 GA채널 '출발 좋았다'

보험매일 https://zrr.kr/IbBLpd

1월 생보사 GA채널 매출은 월납보험료 기준 541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1월 대비 42% 급증, 손보사 GA채널 매출도 351억3,000만원으로 동기간 대비 9.5% 증가
생보는 한화생명, 손보는 메리츠화재가 GA채널 매출에서 우위를 확보

금리 상승에 부채 부담 줄었다…보험사, 장기채 매수 주춤

연합인포맥스 https://zrr.kr/N53JBr

작년 말부터 이어진 금리 상승에 따라 보험사들이 부채 평가 부담을 덜어내면서 장기채 매수 축소
보험사들은 보험 상품을 팔면서 장기 부채를 쌓는 만큼 장기물 금리가 오를수록 부채의 시가평가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

'빗썸 사태'에 거래소 통제 더 세진다…대주주 지분 제한 힘 실려

이데일리 https://zrr.kr/J1pvD2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규제가 강화될 전망으로, 여당 정책 수장의 발언에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에도 힘이 실리는 모습
정부·여당이 2월 내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고위당정협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

신한·기업·농협·K뱅크, '스테이블코인 동맹' 맺는다… 금융권 첫 연합전선

매일경제 https://zrr.kr/v5LW13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뱅크 등 4개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
개별 금융사 차원의 검토는 있었지만, 시중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이 모두 참여해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